

## 특집 성 교육

김 현 수

한국학교보건협회 이사

울산의대부속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교수

### I. 서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욱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무분별한 성개방 풍조와 왜색문화의 영향, 성도덕이 분리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여 청소년을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청소년의 성지식 정도와 성에 대한 노출 정도는 아직 정확히 평가된 바 없으나 청소년기 성문제나 성비행에 대해 면담을 하다 보면, 이들의 성에 대한 지식은 낮은 반면, 성적 유혹과 성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과 함께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유해환경은 무분별한 성적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매체, 유해도서(도색잡지, 만화 등), 유해광고물, 유해시설(비디오방, 성도구를 판매하는 노점상 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극단적인 상업주의와 영합하여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성문제나 성비행과는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요인을 감안할때 사회적 환경 정화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는 여고생이 교실에서 출산을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한 일이 있었다. 어떤사람은 청소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안도의 숨을 쉴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안심할 수 있는가?' 자문해 볼때 누구도 안심해도 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성에 노출되므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은 이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시키지 못한 가정, 학교 나아가 우리사회의 책임일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인간 성태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의 정의, 목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지침, 연령별 성교육의 구체적 내용, 성교육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성교육을 위한 접근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성태(Sexuality)와 성교육

#### 1. 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성'이라는 단어에서 육체를 떠올리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녀의 성기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성기나 성기중심적인 행위가 인간의 성행위에 포함되기는 하나 이것이 성 그 자체는 아니다. 성은 오히려 성별에 따른 역할과 관계,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성별인식 및 성별차이 등을 포함하는 보다 총체적이며 보다 전인격적 존재라 할 수 있다.

## 2. 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성교육의 정의를 하기전에 먼저 성(sex)의 어원을 살펴보면 성은 라틴어 seco(절단) 또는 sextus(제6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즉 성교육은 남녀의 차이와 이와 관련된 내용이나 특성을 교육하는 것이며, 또한 모세 10계명중 제6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때 남녀의 성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즉 좁게는 남녀의 상호관계 및 성도덕에 관련된 교육이며 넓게는 인류의 역사와 진화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조명하고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 3. 성교육의 목적

성교육의 일반적 목적을 간략히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개인에게 자신의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숙과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성장발달 및 적응과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함이며 두번째는 이성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며,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째는 건전한 이성관계 또는 인간관계를 개인적 삶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생활에까지 확대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네째는 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도덕적 가치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는 성적착취나 신체적, 정서적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주며 나아가 매춘, 사생아, 성차별적인 성규범, 성적착취 등과 같은 사회악이 발붙일 수 없는 건전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이 배우자, 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한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성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성교육을 통하여 성문제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4.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이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일 것이다.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나 부모가 자신의 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특히 학령전기 아이의 성에 대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상적 환경이라면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성에 부합하는 성정체성

(gender identity)과 성역할행동(gender role behavior)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성정체성이란 아동이 자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정확히 분류하는 능력이며 성역할 행동이란 자신과 자신의 성에서 기대받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영아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수 있는 외적 특징 중 일부를 생후 약 15~18개월에 알아차리게 된다. 또한 2세반 정도가 되면 이미 자신의 성에 대하여 부모와 주변사람이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이 시기에 여아들은 이미 인형을 갖고 논다거나 어머니를 돕는 일을 하게되며 남아들은 자동차 놀이나 아버지를 도와준다거나 무엇인가 만드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아동의 성역할행동의 습득에는 가정에서 부모의 강화와 처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남아가 독립적이고 씩씩해 보이는 행동을 하였을 때만 부모가 칭찬을 하고 다소 나약하거나 부드러운 면을 보일때 부모가 이를 나무란다면 이 아이는 계속 독립적이고 용감한 행동만을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아도 의존적이고 조용한 놀이를 할때만 칭찬해주고 보상해준다면 이 아이는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취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남성의 부드러움과 여성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이며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한계를 극복하고 양성의 장점과 특성을 갖춘 보다 창조적 인간형이 요구되는 사회로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령전기 아동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발달단계에서의 성교육에서도 부모는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학령기에서의 성적 눈뜸, 사춘기의 성적 변화(생리적 현상 등) 및 성적 행위(자위 행위, 이성교제 등) 등에 대하여 부모는 사전에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사춘기를 알리는 변화가 나타났을때 즉 여아가 초경을 하였거나, 남아가 수염이 났거나 몽정을 했을 경우 맨처음 가정에서의 부모의 반응은 성에 대한 아이의 인식을 결정짓게 된다. 즉 부모가 이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커가는 자녀에 대한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으로 대하였는지 아니면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로 대하였는지에 따라 성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각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근친상간 또한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성문제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근친상간에 대한 충동이나 실제 일어날 근친상간으로 괴로워 할 수 있다. 근친상간이란 가족 또는 친족간의 성관계로 가장 흔히 보고되는 유형이 아버지와 딸, 오빠와 여동생의 성관계 이다. 근친상간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환경적 특성은 다양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부부중 어느 한쪽이 아내로써 또는 남편으로써의 자신의 역할수행에 문제가 있을때 부모와 자녀간의 성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나치게 신체적 접촉이 허용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근친상간이 발생한 가정은 정상적 가정이라 할 수 없으며 부모는 야기된 사태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성교육은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한 것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춘기의 성적충동을 인간은 충분히 극복하고 승화시킬수 있음을 그 세대를 지나온 경험자로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사춘기의 고민과 사춘기의 당혹스러움을 아이들은 한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성적 충동을 자제할 줄 알게됨으로써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성비행문제도 더불어 감소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에 있는 부모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들의 부모세대 또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의문이다. 부모 또한 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가정환경이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 5. 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학교는 성지식의 전달장소로써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서 선배나 또래집단으로 부터 얻는 성정보가 대부분 정확한 정보라 할 수는 없으나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처음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주는 사람이 부모나 교사가 아닌 선배나 친구라는 점에서 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춘기 발현 연령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결혼연령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 농경사회보다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속에서 결혼이 가능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진 때문이다. 때문에 급격한 성적 성숙과 성적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기를 이들은 대부분 학교라는 울타리속에서 오로지 공부만을 강요당한채 보내게 된다. 청소년기의 생리적 측면의 관점에서 볼때 이는 매우 반자연적인 것이며 잔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조혼의 풍습으로 오히려 성욕구로 인한 문제가 비교적 적었으나 오늘날의 만혼풍조는 성충동의 억압으로 여러가지 성문제를 낳기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실시와 성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스포츠, 음악 등에서의 청춘스타들은 사실은 넘치는 이 시기의 성에너지를 보다 높은 차원의 형태로 승화시킨 예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학교환경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아마도 교사의 자질일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진심으로 좋아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의 역할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또한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히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선배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거리감 없이 솔직하게 학생의 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상담시간을 따로 마련해 둬으로써 성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성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 6. 성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및 종교단체의 역할

지역사회와 교회 등의 종교기관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오

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비디오 등의 영상매체, 음란 도서 등의 유해사회 환경이 청소년 성문제나 성 비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나 유관기관들은 이러한 유해사회환경 추방운동과 건전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이다. 따라서 이들이 진흙탕속을 헤매지 않고 투명한 환경속에서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돕는 일은 성인의 책임이며 성인이 할 일이다.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이라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성문화속에서 건강한 청소년의 성적 발달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사회내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공간 시설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기독교나 로마카톨릭교와 같은 종교에서는 일찌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독교가 인간의 통합된 부분으로써 성의 개념을 얼마나 깊이 다루고 있는지도 주지의 사실이다. 교회의 학생회 활동이나 청년부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해지며 건전한 성에 대한 체험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인간의 성적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시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성적 죄책감을 불러킬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일부 종교에서는 정신의학적으로는 문제시 하지 않는 자위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와 인간의 성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종교가 인간의 성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제시된 바가 없다. 오히려 종교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부부교실(M.E)' 같은 모임은 결혼을 앞둔 청춘남녀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며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부부의 결혼 생활이 그렇지 못한 부부 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믿음과 인간의 성생활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바라 할 수 있다.

성교육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중 하나는 성에 대한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해서이다. 아이가 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제지 당하고 이러한 주제를 금기시 할때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게 될 것이다. 종교는 분명 신자가 자신의 성에 책임을 지고 책임의 범위내에서 성을 즐길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성을 수치스럽고 두려운 존재로 보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지도자는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나아가 인간의 성적건강을 위해 최대한 지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종교관과 일치하는 교육적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III 외국의 성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최근에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그간 계속 성교육 실시에 대한 논의와 실제 산발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긴 하였으나 번번히 중도에서 중단되었던 이유는 일부 부모, 지역사회, 종교단체의 반대 및 성교육전문 교사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성교육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십대 임신율의 상승과 성병이환률의 증가로 1960년대 초 성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의 성교육 내용은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생리현상, 출산, 성병 및 성병예방에 대하여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은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유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모의 권위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훼손시키고,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조장하며,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도덕성을 손상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근거는 그간의 여러 연구결과에서 이미 밝혀진바 있다.

더우기 성을 아이들에게 더이상 감출 필요가 없게 만든것은 대중매체에서의 성에 대한 솔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성은 이제 미국사회에서는 단지 허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절하고 존중할 만한 토론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특히 사회과학이나 아동발달학등 관련분야 연구로부터의 새로운 지식의 출현과 문화적 태도 변화로 부터 인간의 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 생식기의 해부, 생리라는 국소적 관점으로 부터, 오늘날의 성교육 관점은 전인격 발달의 통합부분으로서 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간 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생애주기와 발맞추는것이어야 하며, 우선 부모, 교사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을 교육하여야 하는 부모와 교사 부터 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 자체에만 역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인간과 인간의 성적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1. 지역사회내 자원의 활용

성교육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간 성태에 대한 다학문간 접근의 필요성과 성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이 자칫하면 논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사회내 유관기관으로 부터의 도움이나 학교 당국과 이들 기관과의 협조체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역사회내의 공중보건, 사회복지 부문, 가정간호사 제도, 종교집단, 청년봉사 집단, 퇴직교사 집단등이나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학부모 대표 등을 학교나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을것이다.

## 2. 성교육 교사 및 성교육 전문가의 양성

오늘날의 성교육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도 숙련된 교사나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성교육 교사의 양성과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지역사회내 보건소의 의사나 간호사를 학교강당에 초빙하여 생리현상, 생식과정, 성병예방 등에 대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많은 주립대학교나 단과대학 등에서 건강교육학과나 가족생활학과 등에서 성교육의 내용이나 성교육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중등학교 교사 대상 하계수련회를 열어 성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대학에서는 자체내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교기관과 여러 사회단체 또한 그들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성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과거보다 자격있는 성교육 전문가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은 성교육 교사들의 자질정도와 이를 위한 연수기간이 어느정도가 적합한가이다. 현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성교육 교사의 연수기간은 3일간의 하계수련회부터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는 성교육자의 연수기간이 상향조정되어 저야 하며 연수기간 및 연수내용 또한 법제화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성교육자가 되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즉 성교육자는 인간성태(human sexuality)에 대한 내용, 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단점 및 태도, 성교육 자체를 위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성태에 대한 내용으로는 정신성적발달, 인간의 성 및 성생리, 임신 및 출산, 생물학적 성과 문화적 성, 결혼 및 가정생활에서의 성 등이 포함 된다. 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관점 및 태도에서는 자신의 성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해, 자신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성적문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견해에 대한 수용 등이라 할 수 있다. 성교육을 위한 전문적 기술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전달내용에 적절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의 습득, 성문제 상담기술, 집단토의의 역동에 대한 이해 및 집단토의 리더로서의 기술, 학부모단체,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대인관계술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교육 전담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감독교사 하에서의 지속적 교육과 실무 training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성문제의 출현과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시각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 IV. 우리나라의 성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1980년대 교육부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성교육 실시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 하였다. 이어 1982년 2학기 부터는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1983년에는 교육부에서 '성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여 일선교사들이 성교육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이 되도록 구체적 지침을 시달하기도 하였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984년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중학교에 주무교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보건교육시간에 양호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1987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1주일에 6시간 정도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부분적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나마 교사나 학생으로 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 그후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양호교사에게 1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보건수업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나 학교 행정자의 이해부족과 상급학교나 대학진학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교과목 성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성교육을 뒷전으로 미루어 보건수업 시간 조차 제대로 할애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김화중, 1996).

중학교의 경우 체육이나 가정, 생물시간 등의 정규 교과목의 일부 내용에서 성관련 지식을 잠시 다루고 있으나 인간의 해부구조, 생리기능과 같은 신체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할 뿐 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교육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로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체육교재(교육부,

1996)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성교육 관련내용을 분석해 보면 3학년에서는 ‘몸을 깨끗이’ 5학년에서는 ‘우리의 몸’ 6학년에서는 ‘성장의 기쁨’ 이란 주제로 남녀의 차이와 사춘기의 2차 성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1983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한 성교육 자료를 보면 1~2학년에서는 ‘나의 몸과 가정생활’ 을, 3~4학년에서는 ‘소중한 우리들’ ‘몸의 안전’ 을 주로 다루었고 5~6학년에서는 ‘성장의 기쁨 I (2차 성징)’, ‘성장의 기쁨 II (몸, 마음, 어린이의 성장)’, ‘즐거운 집단생활’ 을 다루고 있다.

이상의 성교육 내용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성교육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성의 신체적, 생리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어 인간관계, 사회문화, 인류의 진화, 성역할 행동, 건강, 사회, 문화와 성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성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담교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양호교사가 체육시간내의 보건교육시간을 할애받아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가정시간, 생활시간 등에서 담당교사가 비의도적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성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나마 성교육이라고 짧은 시간 이를 실시하고 있는 이들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교사들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역 사회나 대학차원에서 초·중·고교 교사 대상 ‘성교육을 위한 하계수련회’ 나 ‘성교육 특별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성교육 전담 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교육 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효과는 미지수로 남게된다. 1998년 인천시 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생리를 경험한 여학생이 15%였으나, 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인 학생은 46.4%에 불과하였으면 생리를 경험하기전 생리현상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학생은 15%에 불과 하였다. 몽정을 경험한 남학생은 1.3%였으며 이중 50.73%만이 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이를 감추어야되는 수치스러운 일로 또는 자신이 병에 걸린것 같다고 반응 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생리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은 성교육 시수의 절대부족, 전문교사의 부재, 성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교육내용의 전달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선교사, 학교행정가, 학부모는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교육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성태의 복잡성과 다양성, 사회, 문화, 종교, 경제적 측면과 성과의 연계성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 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나아가 종교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성교육 전담교사 양성 기관 및 제도정착을 위해 관련분야 학자의 지속적 연구와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 V. 연령별 성교육 교과과정 내용

현재 인간의 성교육에 대한 정규 교과과정이나 정식으로 채택된 교재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를 생리적 및 사회·심리적 특성에 맞추어 각 연령별로 세분화하였으며 각 연령층에서의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5~9세의 성교육

학령전기 또는 조기학령기로 이 시기의 성교육 내용은 항상 건강, 과학, 사회성, 언어표현 기술 등과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생식과정에 대한 정보는 신체 각부분에 대한 명칭소개나 또는 애완동물을 이용하여 제시될 수 있다. 출산에 대한 정보는 동물이나 식물의 암수를 예로들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알기쉽게 소개되어야 하며 특히 동생이 생긴 아동의 당혹감이나 의문점은 이 상황을 글로 써보게 함으로써 아이가 이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은 전세계적으로 남아와 여아의 성역할 행동에 매우 관심이 높으며, 사회적으로는 급격히 성역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아동이 매일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성역할행동 습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 시기의 성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성적학대나 근친상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부모나 성교육자들은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야하며 다른 사람-낯선사람 이든 평소 알고있던 사람 이든 간에-의 신체적 접근에 대한 대처방법과 만약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부모나 교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기는 성적문제가 발생하여도 은폐된 채 지나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신성적손상이 되어 아동의 미래에 불행한 삶으로까지 이어질수 있음을 부모와 교사는 기억하여야 한다.

### 2. 10~12세의 성교육

이 시기는 사춘기가 발현되는 시기로 사춘기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정보가 교육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즉 사춘기와 성호르몬의 역할, 생식과정에 대한 체계적 정보, 남녀의 생리현상에 대한 차이와 이에 대한 태도, 초경, 몽정, 자위행위에 대한 정보, 신체적특성과 인격형성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대략적 소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13~15세의 성교육

이 시기에는 성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과 더불어 자기정체성 형성에 역점을 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중학교에 다니는 시기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하는 정체성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자신의 성정체성(gender identity)형성 또한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제이다. 이 시기는 활발한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성과의 첫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때의 이성교제는 일대일 관계라기 보다 씨클활동이나 교회의 학생회활동 등을 통한 남녀 여러명의 모임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격의 본질, 정체성 탐색 과정, 인간 정서의 이해, 대인관계, 소년-소녀 관계, 남녀의 태도면에서의 차이, 데이트의 의미, 목적, 가정 생활에서의 부모와의 갈등, 가치관 확립을 위한 내용과 더불어 이전 연령층에서 보다 더욱 심화된 남녀 생식과정과 피임의 목적, 방법 및 성과 건강(성병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 4. 16~18세의 성교육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극심한 대입진학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한편 성에 대한 유혹이 극심한 환경에 놓여있다는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이성교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는 교제중이거나, 아니며 이성교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 내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주며, 건전한 이성교제와 행복한 미래와의 관련성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즉 결혼과 부모됨이라는 미래의 목표에 맞게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맞는 보편적인 성교육 주제로는 이성관계(데이트), 성규범에 있어서의 이중척도(double standard), 연애, 구혼과정, 일시적 열정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점, 나에게 맞는 배우자 선택하기, 결혼 및 결혼생활에의 적응, 가족계획, 피임의 목적 및 피임의 방법,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의 태도, 낙태, 새로운 생활양식 -동성애, 독신주의 등-, 부모됨, 성적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문화적, 윤리적 이슈에 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 5. 19~22세의 성교육

이는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에 대한 내용은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점차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의학이나 간호학에서만 성관련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왔으나 오늘날은 보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등에서도 해당학과의 관점에서의 성문제를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대상 성교육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루고 있을뿐이나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보다 철학적이거나 문화적 견지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심포지움, 공개토론회, 학생정보서비스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음이 또 다른 차이라 할 수 있다.

## 6. 특수집단을 위한 성교육

부모나 교사, 성교육전문가들은 일부 신체장애자나 정신지체자도 정상 아동이나 청소년과 동일한 성적 욕구가 있으며,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해 탈성적화되어 진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에 대한 성문제에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미네소타 의과대학은 마비 환자의 성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시행한바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뇌성마비자, 장루술환자, 시각장애자, 귀머거리, 정서장애자, 정신지체자 등의 성적 욕구 인식과 성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전제는 이들 특정집단인들도 정상인과 같은 성적욕구를 느끼고 있으나,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성적충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성적정체성과 자신의 성에 부합하는 자기상, 보다 생산적이며 만족스러운 성적 역할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는 장애자가 이러한 개인적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가능한한 만족스러우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특정집단인을 위한 성교육 내용과 전달방식은 아직 밝혀진바가 없어 관련분야 전문가의 연구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 Ⅶ. 성교육에 대한 평가

타교과과정의 평가기준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성교육을 통한 성관련 정보습득의 정도는 측정, 평가하기가 그래도 용이한 편이나 인간의 성에 대한 태도적 변화의 평가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의가 아직 학자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것도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 학교나 기관에 그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흔히 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단지 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차적 기관일뿐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인식, 성적행동에 가정, 또래집단, 대중매체, 사회적 경향이나 유행하는 풍조 만큼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 성교육 프로그램 참석후 학생들이 성적주체를 스스로 없이 논의하는 자세와, 부모와 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성교육 효과에 대한 집단간 비교연구에서는 성교육에 참석한 집단이 참석하지 않은 집단보다 성에 관한 동료의 생각과 견해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나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윤리의식을 보였다고 한다.

성병이환율과 혼외임신에 미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직접

적인 원인 - 결과 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성교육 프로그램내의 교과과정에서 분명히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심지어 성인대상 연구에서도 이들이 임신 및 출산의 기본적인 해부, 생리적 측면이나 성병의 증상이나 예방법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보다 과학적인 연구로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etter research, better program). 즉 현재 개발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킬수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는 것보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명료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탐색,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태생기라 할 수 있다.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발달생태학, 내분비학, 교육학, 신경과학, 정신과학, 간호학,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간의 학제간 접근법이 필요함을 연구자들은 인식하여야 한다.

인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적으로 복잡한 존재이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로인해 문제가 생기는 아이도 있다. 주위 사람으로 부터 성적추행을 당해도 쉽게 잊어버리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망치는 영구적 손상을 입는 사람도 있다. 평생 성생활에서 절정감을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 단 한번의 성관계에서 이를 경험하는 여자도 있다. 매달 1~2회의 성관계로 만족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매일 1~2회의 성관계가 필요한 남자도 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성적으로 각기 너무나도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선은 자신의 성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직하고 편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하다. 자신의 의문사항이 공개적 토론에서 말끔히 해결되는 체험은 새롭고, 치유적인 것이며, 특히 성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이 있거나, 성에 대한 무지로 불안한 청소년에게는 더욱 더 효과적인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불안으로 인한 긴장감의 해결이 성적인것이든, 성적인것이 아니든지간에 청소년기의 충동적 행동이나 기타 문제행동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Ⅶ. 결 론

지난 10여년간은 성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활력소이며 인생의 가장 근원적 요소로써 성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의 위치는 한단계 격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영상매체와 도서 등의 인쇄매체를 통한 성적 주제의 난무는 성을 또다른 차원의 편견적 시각위에 올려 놓았다.

이른바 현대인은 '제4의 물결' 이라고 불리우는 성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 어디를 둘러 보아도 성을 주제로 하지 않은 것을 보기 어려우며 사람들은 모이면 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성에 대하여 이렇게 분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만큼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대상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신의 성에 대한 성적 정체성의 형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의 도시화와 경제만능주의의 현상으로 급격한 사회병리가 싹트게 되었으며 이러한 혼돈속에서 인간의 정신성적 진화는 유사 이래 결코 볼 수 없었던 퇴보를 보이고 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삶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적 요소를 배우게 해주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 환경조성과, 부모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관련분야 학자와 성직자가 그들의 이해와 노력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에 대한 교육은 하나의 교과과정이나 교과목, 세련된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책이나 영화속에서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학교, 교회, 대학, 지역사회들과 같은 제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에 대한 교육은 전생애의 경험적 연속선상에서 구축된 내용이어야 하며, 이곳에서 피교육자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역할과 책임을 갖게되는 것이다.

인간 성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하나,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과 태도는 아직도 성교육의 주요 문제로 남아 있다. 중요한것은 성교육이 청소년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일차적인 성교육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부모는 인간 성태에 대한 계속 교육이 자녀의 성장발달주기에 맞추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은 모두 자신의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성 정보를 얻을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과 종교단체, 지역사회는 다양한 원칙에 입각하여 생애주기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김현수, 김현실, 신화식, 민병근 (1990), 근친상간의 임상적 고찰 및 증례분석, '고대의대 신경정신의학 동문회보', 7(4), PP. 2-26.

김화중(1996), 보건교육교과서: 초·중·고편, 한국학교보건교육 연구처.

교육부(1996), 국민학교 성교육자료, 교육부.

민병근, 김현수(1992), 성비행 청소년의 가족역동, 신경정신의학, 31(3), PP. 604-627.

민병근(1996), 최신목회정신의학, 울산대학교 출판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1983), 성교육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1990),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Calderone, M.S.(1971), Sex education of the child, Child Psychiatry Hum. Dev., 1:211.

Laycock, S.R.(1973), Family living and Sex education, Mil-Mac Publications Ltd, Toronto, Canada.

Newman, B.M. & Newman, P.R. (1995), Development through life-A psychosocial approach-,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U.S.A.